

은행권 3~4%대 고금리 상품 봇물

한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
우대금리 받으면 6%대도 가능
저축은행들도 특판 상품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 3% 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도 수신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대 예·적금 상품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최대 6%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도 나왔다.

◇시중은행, 3~4%대 상품 봇물=우리은행이 출시한 우리여행 적금의 경우 여행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80%지만 우대금리 4.20%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6.0%에 이른다. 우대금리는 급여·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우리 신용카드 이용 등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이 내놓은 'IBK W소확행통장'은 적립식이면 IBK카드를 사용한 실적(건수 또는 금

액), 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연 2.4%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대 연 4.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소확행 통장은 소상공인의 기(氣)를 확 살리는 동행을 약속하고, 고객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기원하는 통장'이라는 의미다.

광주은행도 오는 7일부터 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상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첫거래 세배드림적금상품(3년 만기)은 기본 금리(1.2%)에 연 2.2%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6%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처음으로 가입하고 신한은행을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쏠면한 선물하는 적금' 기본금리는 기존 연 3.00%에서 연 3.10%로 인상됐다.

NH농협은행도 지난 4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0~0.30%포인트 올리면서 기존 3년 만기 자유로우대학생적금상품의 금리는 2.00%로 변경됐다.

◇저축은행도 특판상품 잇따라=저축은행들도 경

쟁적으로 특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6%, 24개월 2.74%, 36개월 2.77%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점은 매력적이다.

DB저축은행이 내놓은 '드림빅 정기적금'은 DB손해보험과 제휴해 최고 6.9%를 제공하는 상품. 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DB손보의 다이렉트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3.6~6.90% 금리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애플리케이션(앱)인 '웰뱅'으로 첫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기본 연 3.20% 금리를 주는 '웰컴 첫거래우대 e정기적금'을 판매하고 드림저축은행은 비대면 저축상품인 '톡톡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3.10%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만큼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항공사 "엘리버드 여행객 잡아라"

아시아나·제주항공 등 이벤트
항공권 30~40% 할인 판매

항공사들이 '엘리버드' 여행객 잡기에 돌입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열풍 속에 연월차 휴가를 이용, 여가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항공권과 이벤트 상품을 마련, 휴가족의 눈길을 붙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일까지 운영하는 오즈드림페어를 통해 일반 항공권보다 30~40% 가량 싼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6월부터 이용할 수 있어 번잡함을 피해 비용을 절약하며 해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점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항공권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오사카 노선은 21만7000원(왕복), 인천-나고야는 25만2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고 인천-홍콩도 왕복 26만5500원으로 다 내려 올 수 있다. 인천-싱가포르 42만 3000원(왕

복), 인천-다낭 30만4200원(왕복)에 판매된다.

제주항공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찜(JJim)' 이벤트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찜 항공권'은 무료로 말기는 수하물 없이 비행기안으로 1개의 휴대품(3면 합계 115cm 이내, 무게 10kg 이하)만 들고 가는 조건으로,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김포와 제주 등을 기점으로 하는 국내선 모든 노선을 최저 1만67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국제선도 인천-도쿄(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노선 등은 최저 5만3800원부터, 방콕 7만5600원, 마닐라와 세부, 하노이, 다낭 7만 1600원부터 판매된다.

무안을 출발하는 오사카와 타이베이, 다낭, 방콕 등의 노선별 최저 가격도 4만4800원~6만 7400원으로 정해 판매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에 김석기 농협미래지원센터장

박태선 본부장 NH농협은행 부행장

김석기(사진) 현 농협중앙회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장이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됐다. 현 김일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유임됐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그룹은 5일 집행간부(급)와 지역(영업)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태선 현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NH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됐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에는 서욱원 현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장이, 광주영업본부장에는 농협은행 수택업무센터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송중욱 행장(왼쪽 두번째)이 광주은행 신입직원 등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5일 오전 무등육아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최영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정은강 무등육아원장, 광주은행 신입직원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장김치 500포기를 직접 담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김장김치를 담그며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눔 사랑과 정성이 따뜻한 온기로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계 각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0가구 넘는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증액 한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5%서 2~3%대로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을 정하도록 한 민간임대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

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물치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시행령을 통해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사·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정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해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가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료 인상을 다소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월 신설 법인 광주 9.2%, 전남 27.5% 증가

전국적 8473개 34% ↑…추석 이동 영향

지난 10월 새로 만들어진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34.4% 늘었다. 실제 법인 설립이 활발한 것보다 명절이 9월로 옮겨가면서 10월 법인등록 가능 날짜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신설법인은 총 84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8개(34.4%)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각각 34.3%, 4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로 옮겨가면서, 10월에 법인등록일 수가 16일에서 21일로 5일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신설법인 수가 크게 늘긴 했지만, 수치 자체로만 읽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남지역은 260개로 전년 같은 기간 211개보다 27.5% 증가한 반면, 광주는 297개로 전년 272개보다 9.2%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절 이동 영향을 배제하고 보면, 제조업 신설법인은 이전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완화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신설법인 누적량은 8만5324개로, 지난해보다 4421개(5.5%) 증가하는 등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도 2599개에서 3075개로 18.3% 늘었고, 광주는 3137개에서 3150개로 0.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1.31 (-13.04)

↓ 코스닥 701.12 (-7.51)

↓ 금리(국고채 3년) 1.90 (-0.01)

↑ 환율(USD) 1114.10 (+8.80)

2018 여수 총무 청소년 아카데미

추가모집

2018.12.8. 토 10:00 - 18:30

대상 초·중고생 누구나!

일시 2018년 12월 8일 (토) 10:00-18:30

장소 여수시 일원

참가비 무료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접수

모집일정 12월 5일 (수) 까지

참가신청 참한창작소 블로그&이메일 접수
blog.naver.com/charmhan0510
-신청확인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문의 ☎ 010-7442-7325
✉ charmhan0510@naver.com

주최 여수시

주관 지역미래연구원

후원 光州日報

여모티컬동조합
Amotic Cooperative

참한창작소